

보도시점 2026. 9. 4.(금) 배포시점 배포 2026. 9. 4.(금) 회의 종료 후

“2026 아시안게임, 보편적 시청권 보장” 권고

- 순차편성과 함께 비인기·신규 종목, 장애인 아시안게임 중계활성화 등 요청 -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(위원장 김종철)는 4일 ‘2026년 제33차 위원회(서면)’를 통해 오는 19일 개막하는 ‘2026 아이치-나고야 아시안게임’의 중계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순차편성과 함께 비인기·이스포츠(e-Sports) 등 신규 종목에 대해서도 적극 중계할 것을 권고했다.

방미통위는 이번 아시안게임(9.19.-10.4) 중계방송에 있어 과도하게 중복 편성되지 않도록 채널별·매체별 순차편성 및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사항들을 권고했다.

다만 개·폐막식과 한국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경기의 경우에는 순차편성의 예외로 인정했다.

또한 이번 대회에서 중계되는 비인기 종목과 이스포츠 등 신규 종목, 연이어 개최되는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(10.18.-10.24.) 중계방송에 대해서도 이를 시청하고자 하는 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중계에 임해줄 것을 권고했다.

이번 권고는 지난 8월 열린 ‘제9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(위원장 고민수)’의 제4차 회의에서 국민의 시청 기회 확대 등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결정됐다.

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“아시안게임은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제적 행사로 국민 시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중계방송 사업자들의 노력을 당부한다”고 말했다.

붙임. 권고문 전문

담당 부서	방송기반국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	책임자	과장(代)	김영주 (02-2110-1280)
		담당자	사무관	신창환 (02-2110-1266)

2026년 아이치-나고야 아시안게임 중계 관련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권고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아이치-나고야 아시안게임 중계 방송과 관련하여, 「방송법」 제76조의5에 따라 과도한 중복편성으로 인해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아시안게임을 중계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채널별·매체별로 순차적인 편성을 권고한다.

다만, 개·폐막식과 한국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등 국민 관심이 높은 경기에 대해서는 순차편성의 예외를 인정한다.

아울러 이번 대회에서 중계되는 비인기 종목과 이스포츠(e-Sports) 등 신규 도입 종목에 대해서도 이를 시청하고자 하는 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과,

2026 아이치-나고야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의 중계방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시청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기를 권고한다.

2026. 9. 4.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